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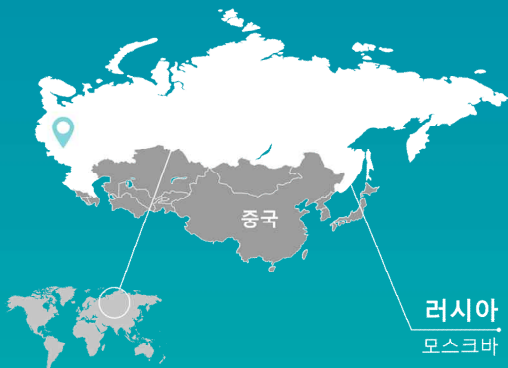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2018년 10월 5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7,098천 km ² 	인구 143.97백만명 (2018 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동북아시아 국가, 신흥국들과의 협력정책 
GDP 15,462.29억 달러 (2018 추정) 	1인당GDP 10,739.94달러 (2018 추정) 	통화단위 Russian Ruble(RUB) 	환율(U\$기준) 63.33 (2018 추정)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17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나,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고 있음.
- 2015~2016년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유가하락과 함께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개입 등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2017년 이후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대,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으로 여전히 미국, EU와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서방과 관계가 악화된 터키와도 경제, 외교, 군사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4,685,732	4,768,751	6,906,618	합성수지, 차량, 송신기기, 의류,
수 입	11,308,287	8,640,613	12,039,530	석유, 알미늄괴, 철강, 농축우라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18.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528건, 2,425,510천 달러

우리은행과의 관계

(2018/09/28 현재)

구분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액	대출잔액
수은대출(천달러)	17,352,632	17,207,010		432,768
경험기금(백만원)				

중전 평가일 : 2017.12.29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점	중전평점	가중치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70	70	35%
		소비자물가상승률(%)	50	30	15%
		재정수지/GDP(%)	70	50	15%
		GDP 규모(억 달러)	90	90	25%
		실질GDP 성장률(%)	30	30	5%
		국내총투자/GDP(%)	50	50	5%
II. 국제경제 (50%)	대외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90	90	25%
		총수출/GDP(%)	50	30	25%
		총수출증가율(%)	70	50	15%
		경상수지/GDP(%)	70	70	35%
		총외채잔액/GDP(%)	50	50	20%
	외채상환능력 (25%)	D.S.R.(%)	70	70	25%
		총외채잔액/총수출(%)	50	50	45%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70	70	10%

합계

중전 평가일 : 2017.12.29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점	중전평점	가중치
국내경제	국내경제	69	63	50%
국제경제	대외거래	70	62	25%
	외채상환능력	57	57	25%
정량평가총계		66.25	61.25	100%

정량평가 경제지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종전 평가일 : 2017.12.29

분야	평가요소	2014	2015	2016	2017	2018 ^f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14,371	9,518	8,899	10,962	10,740	
	소비자물가상승률(%)	7.8	15.5	7.1	3.7	2.8	
	재정수지/GDP(%)	-1.1	-3.4	-3.7	-1.5	0.0	
	GDP 규모(억 달러)	20,636	13,684	12,812	15,784	15,462	
	실질GDP 성장률(%)	0.7	-2.5	-0.2	1.6	1.7	
	국내총투자/GDP(%)	22.1	21.8	22.9	23.8	23.7	
II. 국제경제 (50%)	대외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7.5	10.8	11.1	10.1	9.9
		경상수지/GDP(%)	2.8	5.0	1.9	2.3	4.3
		총수출증가율(%)	-3.9	-29.4	-13.3	23.4	22.8
	외채상환능력 (25%)	총수출/GDP(%)	29.6	31.5	29.1	29.2	36.6
		총외채잔액/총수출(%)	90.1	108.7	140.7	118.8	97.5
		D.S.R.(%)	22.3	18.7	13.4	15.0	14.5
		총외채잔액/GDP(%)	26.6	34.2	41.0	34.7	35.7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8.3	13.2	14.2	19.2	18.8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0.7	-2.5	-0.2	1.6	1.7
소비자물가상승률	7.8	15.5	7.1	3.7	2.8
재정수지/GDP	-1.1	-3.4	-3.7	-1.5	0

자료: IMF, EIU

국제 유가 상승 추세 지속으로 2018년 1.7% 경제성장률 전망

- 2018년 국제 유가 상승추세 지속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2017년의 1.5%에 이어 2018년에도 1.7%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생산증가율은 2015년 -0.8%에서 2016년 2.2%, 2017년 2.1%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1/4분기 2.8%, 2/4분기 3.2%로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16년 -0.2%에서 2017년 4.4%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8년에도 1/4분기 3.6%, 2/4분기 3.2%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국내수요 증가도 2016년 -4.6%에서 2017년에는 1.3%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1/4분기 2.4%, 2/4분기 2.7%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2018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02% 흑자 전환 전망

- 저유가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2015년과 2016년의 -3%대에서 2017년 -1.5%로 개선되었으며, 2018년에는 0.02%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16년 12월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석유수출국들의 합의에 따른 원유 감산 지속, 세계경제 회복세,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부문으로부터의 세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이후 환율안정에 따라 안정 추세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율이 하락함.
- 루블화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15.5%, 2016년에는 7.0%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환율안정으로 3.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2.8%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7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왔으나, 2018년 9월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다시 상향 조정함.
- 중앙은행은 2017년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7.75%→7.5%(2월)→7.25%(3월)), 2018년 9월에는 대러 제재로 인한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다시 7.5%로 인상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57,513	67,777	24,517	35,437	65,926
경상수지/GDP	2.8	5.0	1.9	2.3	4.3
상 품 수 지	188,931	148,398	90,215	115,421	167,831
상 품 수 출	496,806	341,419	281,709	353,547	444,186
상 품 수 입	307,875	193,021	191,494	238,126	276,355
외 환 보 유 액	338,155	319,835	317,544	351,139	405,512
총 외 채	549,592	467,688	524,686	546,829	551,184
총외채잔액/GDP	26.6	34.2	41.0	34.7	35.7
D.S.R.	22.3	18.7	13.4	15.0	14.5

자료: IMF, EIU

에너지 수출 증가에 따라 2017년에는 교역규모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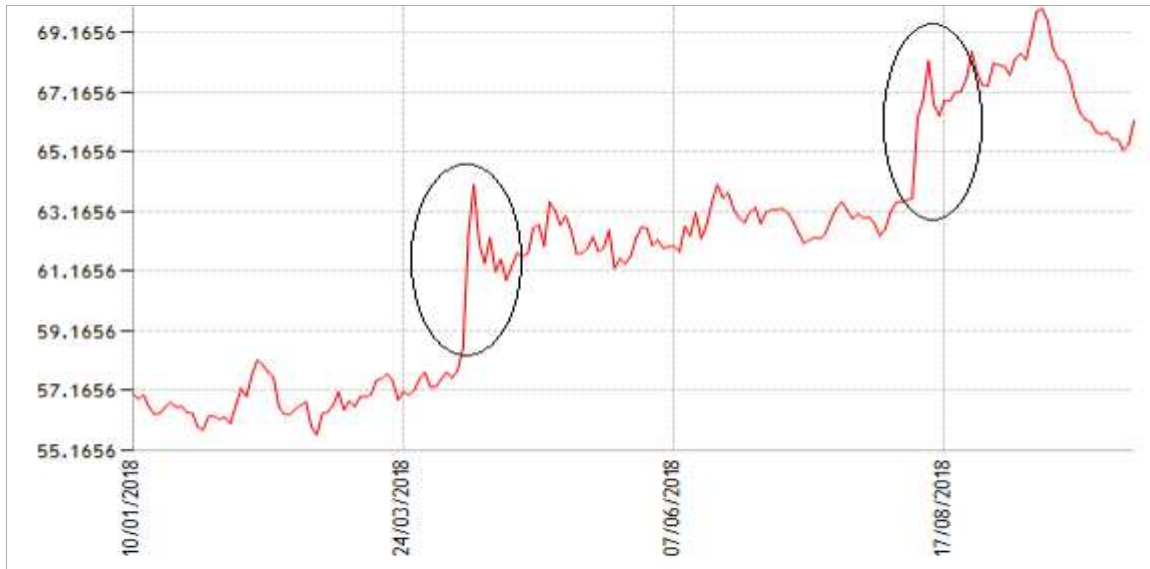
- 세계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에 따른 2015~16년 교역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유가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증가함.
-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액은 25.4%, 수입액은 24%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은 25.8% 증가하고, 수입액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증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6년의 1.9%에서 2017년에는 2.3%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4.3%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대러 제재로 루블화 환율 다소 상승

-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규모 증가로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2016년 달러당 평균 67.06루블에서 2017년 평균 58.34루블로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는 평균 63.3루블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의 환율 상승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2018년 4월과 8월에 각각 발표된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와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 기대에 따른 일부 기업들의 소매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

<그림 1> 2018년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환율 변동

단위: 달러당 루블



※ 4월과 8월 서방의 대러 제재 추가 발표이후, 러시아 환율 급격하게 변동 (9월 12일 달러당 69.97루블 기록 이후 안정, 10월 5일 달러당 66.2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증가추세

-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세계 6위 규모임.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말 3,777억 달러로 2017년 말 4,327억 달러로 14.6% 증가하였으며, 2018년 6월 말에는 4,567억 달러로 연초에 비해 5% 가량 증가하였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하락 추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41%에서 2017년 34.7%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는 35.7%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수준임.
- DSR은 2016년 13.4%에서 2017년에는 만기도래 상환액의 증가로 15%로 상승한 뒤, 2018년에는 14.5%로 다소 하락함.

종전 평가일 : 2017.12.29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점	종전평점	가중치
I.경제 (20%)	구조적 취약성	30	30	50%
	성장 잠재력	30	30	25%
	정책성과	30	30	25%
II.정치/사회 (50%)	정치 안정	50	50	50%
	사회 안정(소요/사태)	30	30	40%
	국제관계	30	30	10%
III.국제신인도 (30%)	외채상환태도	50	70	33.4%
	국제시장평가	70	50	33.3%
	우리나라와의 관계	50	50	33.3%

합계

종전 평가일 : 2017.12.29

평가분야	평점	종전평점	가중치
경제	30	30	20%
정치/사회	40	40	50%
국제신인도	57	57	30%
정성평가총계	43	43	100%

구조적취약성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2017년 연간 석유·가스 부문 수출총액은 1,921억 달러로 전년 동기(1,511억 달러) 대비 27.1%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3%로 전년도(53.6%)에 비해 0.7% 증가함.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속

- 2017년 최대 민간은행의 부도 위험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실시하였으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금융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 중앙은행은 2017년 7월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최대 민간은행인 '앗크리치예' 은행에 대해 56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민간은행들도 부실여신의 비중(무디스의 평가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12%)이 높아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성장잠재력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의 세계 주요 생산국

- 러시아는 2017년 기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3%, 생산의 12.2%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의 18.1%로 1위, 생산량은 17.3%로 2위를 차지하였음.
- BP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1,062억 배럴(145억 톤)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다음이며, 생산에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일일평균 1,126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임.
- 천연가스 매장량은 35조 입방미터로 세계 1위, 생산량은 6,356억 입방미터로 미국(7,345억 입방미터)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에 주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며, 북극해 등에 다수의 미개발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생산 증대가 가능함.

- 2017년 BP 자료에 따르면,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의 15.5%이며,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의 5.5%에 달함.
- 석탄 매장량은 1,603억 톤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생산량은 2억 630만 톤으로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임.

국부펀드를 통한 경제안정 가능성

-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국부펀드를 거시경제 안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의 재정적자 보전, 연금기금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GDP의 4.9%인 771억 달러에 달함.
- 국부펀드와 함께 정부재정 지원,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기금이 운영되었으나, 경기침체기의 재정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말 기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운용되지 않음.

정책성과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지수 및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승

- 2018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전체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35위(전체 190개국)로 기록되었음.
- 전력수급,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체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38위(전체 138개국)를 기록하였음.
- 세계경제포럼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거시경제안정성, 보건·교육, 혁신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 통계청, 빈곤인구 감소 발표

- 러시아 통계청은 2017년 빈곤인구가 2016년 대비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함.
- 통계청이 발표하는 빈곤인구는 최저 생계비 10,088루블(약 173달러, 1달러=58.34 기준(2017년 평균환율)) 이하 소득 생활자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3.3%에서 13.2%로 감소하였음.

푸틴 집권 4기 사회보장 확대 정책 추진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집권 4기 동안 교육, 보건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야말 LNG 생산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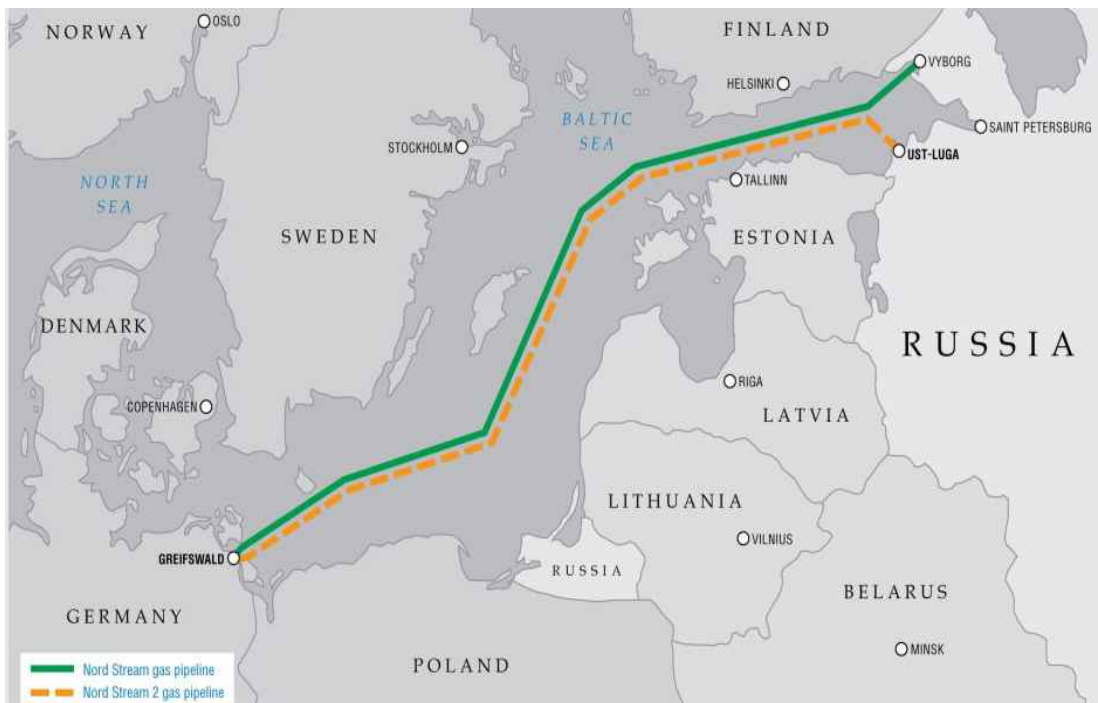
- 시베리아 북부 지역 야말 반도에서 2017년 12월부터 LNG 공장이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야말 LNG-2 사업을 통해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 야말 반도의 LNG 생산은 러시아에서 사할린에 이어 두 번째 LNG 생산이며, 생산규모는 연 1,650만 톤임. 2023년부터는 야말 LNG-2 사업에서도 연 1,800만 톤의 LNG 생산이 계획됨.
- 발트해 해저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노드 스트림 2’ 해저 가스관 건설이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확대될 전망임.
- ‘노드 스트림 2’는 우크라이나를 가스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우크라이나 등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의 동의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망



자료: eknews 2014년 7월 8일

<그림 3>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1, 2



자료: 가스신문 2016년 4월 21일

정치동향

푸틴 대통령, 3월 대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연금개혁법안 발표로 지지율 급격히 하락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대선에서 7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4년까지 집권 4기를 맞이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5월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집권 4기 동안 세계 5대 경제대국 도약, 수출지향 산업 부문 확대 등 경제정책과 함께 국민 삶의 질 개선, 빈곤 인구 감축, 교육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하였음.
- 푸틴의 지지율은 그러나 6월 이후, 퇴직과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법 추진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퇴직과 연금수령 시기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남성은 2028년까지 65세, 여성은 2034년까지 60세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지급연령을 늦추는 대신 월 연금 지급액의 1,000루블(약 15달러) 인상을 제안하고 있음.
- 6월 14일 연금개혁법안 발표 이후, 러시아 여론조사기관(POF)이 발표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초의 62%에서 8월 초에는 46%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연금개혁의 여파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부진

- 하바롭스크 주, 블라디미르 주에서 현 주지사이며,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들이 낙선하였음.
- 하바롭스크 주와 블라디미르 주에서는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되었으며, 연해주와 하카시야 지역에서는 여당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의 득표율을 거두지 못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는 연금개혁 추진으로 푸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사회동향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질임금상승률이 상승하고, 실질가처분 소득 증가

- 임금은 상승 추세이며, 실질가처분 소득도 증가하였음.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6년 0.8%에서 2017년에는 3.5%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1/4분기 10.2%, 2/4분기 7.4%로 상승하였음.
-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6년 -5.8%, 2017년 -1.7%에서 2018년에는 1/4분기 3.2%, 2/4분기 2.0%를 기록하고 있음.

연금개혁 추진에 따른 반정부 시위 전국적으로 발생

- 2018년 6월 연금개혁법안 발표 이후 반정부, 반푸틴 시위가 지속됨.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니'는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

국제관계

중국 및 터키와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러시아의 극동 개발, 군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시베리아에 위치한 러시아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스관 건설공사가 2014년에 착공되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러시아 지역 자루비노 항 등의 항만 개발, '프리모리예 1,2' 등의 운송로 건설과 농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 러시아 노바텍과 중국의 최대 해운기업 COSCO, 실크로드 기금 등은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극항로를 통한 LNG 수송 루트 개발과 선박 건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 9월 동해, 베링 해협, 오호츠크해 등지에서 30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보스톡(동방) 2018'을 실시하였음
- 서방과 갈등관계에 있는 터키와 경제, 외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4월 대통령 당선 후 첫 방문국으로 터키를 택하였으며, 러시아는 국영 원자력 공사의 터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체계 공급에 합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8월, 러시아와 터키의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양국의 교역에서 처음으로 루블화를 사용하는 등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의 대러시아 신규 제재로 서방과의 악화 관계 지속

- 2018년 4월과 8월 영국과 미국은 대러시아 신규 제재를 발표하였음.
- 2018년 3월에 발생한 영국의 이중 스파이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였음, 미국도 러시아 정부와 연관 인사,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경제제재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60여명을 추방하고 시애틀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함.
- ※ 2018년 4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서는 기업인, 고위관리 24명과 14개 기업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됨. 러시아의 대기업 회장 및 대주주들인 Oleg Deripaska(En+, Rusal), Viktor Vekselberg(Renova), Igor Rotenberg 등과 대기업들인 Rusal, Basel, En+ 등이 포함됨.
- 미국은 8월에도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나 기술이전 금지 조치(가스터빈 및 엔진, 집적회로, 항공전자공학부품 등이 포함)를 발표함.

구소련 국가이며, 협력이 미진한 아제르바이잔과 관계 개선

- 구소련 해체 이후, 협력이 미진하였던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와 군사 부문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푸틴 대통령과 알리에프 대통령은 9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의 유전, 가스전 탐사에 양국 에너지 기업이 협력하기로 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산 군수품 50억 달러를 구매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군수 부문의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8년 6월 말 기준 러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금액은 단기 23.54억 달러, 중장기 277.14억 달러 등 300.68억 달러에 달함.
- 단기채무 가운데 39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한편 중장기 채무 가운데 2억 3,30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00만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2017.12)	C2(2016.12)
OECD	4등급(2018.01)	4등급(2017.01)
S & P	BBB-(2018.02)	BB+ (2017.03)
Moody's	Ba1 (2018.01)	Ba1 (2017.02)
Fitch	BBB-(2018.08)	BBB-(2017.09)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Moody's는 2018년 1월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S&P는 3월 BB+에서 투자등급인 BBB-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5~16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7년 1.5%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였으며, 2018년에도 1.8%의 성장이 전망됨. 재정수지도 적자를 벗어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며,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4기 집권에 높은 득표율로 성공하였으나, 연금개혁 추진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 러시아는 2018년 3월에 발생한 영국 이중 스파이 암살시도 사건과 서방의 제재 지속에 따라 미국, 영국 등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나 터키 등과 경제, 군사 등의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2018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 35.6%,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18.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평가결과

종전 평가일 : 2017.12.29

평가분야	평점	가중치	종전평점
정량평가	66.25	50%	61.25
정성평가	43	50%	43
종합평가	54.63	100%	52.13
신용도등급	C1		C1

등급(점수)	2014	2015	2016	2017	2018
A(80이상)					
B1(70~80)					
B2(60~70)					
C1(50~60)				C1	C1
C2(45~50)	C2	C2	C2		
C3(40~45)					
D1(35~40)					
D2(30~35)					
E(30미만)					

구소련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OECD 4등급) (수은 C1)	(OECD 6등급) (수은 C3)	(OECD 5등급) (수은 C3)	(OECD 6등급) (수은 D1)
GDP 규모 (억 달러)	15,462	1,562	392	424
1인당 GDP(달러)	10,740	8,585	4,098	7,646
경제성장률 (%)	1.7	3.7	1.6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7.3	12.0	6.0
재정수지/GDP(%)	0.0	-6.6	-0.3	-0.8
경상수지/GDP(%)	4.3	-5.3	1.9	-12.8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9.9	3.6	5.8	19.9
외채상환액/총수출 (%)	14.5	29.0	10.9	14.4
총외채잔액/GDP(%)	35.7	110.1	44.0	24.3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	18.8	39.5	18.2	1.2